

명월본향 축일한집님.  
아방국은 최주국 아들애기  
어멍국은 정좌수띠님애기우다.  
최주국아들이  
아방눈에 시찌나고  
어멍눈에 골리난  
돌란 내쳐부난  
어멍국을 추산  
검은오름를 오랐더니.  
“내 주식이 아니니  
기여나라.” 흐였수다.  
최주국아들은  
신산만산 마사기총을  
둘러매고  
신산고지 도올라서  
총을 밤 낮 쏘와도  
뭣 흐나 사농을 못 흐였수다.  
그 때에 ?리에  
호근으로 정좌수띠님애기도  
아방눈에 시찌나고  
어멍눈에 골리나서  
산정에 죽을랴고  
올라가서 있다.  
서로 만났수다.  
정좌수띠님애기가 말을 흐되.  
“산포수가 어찌해서  
산신제를 아니지내느냐?”  
흐여.  
최주국아들은  
그제사.  
밥 전에 가 밥 사고,  
떡 전에 가 떡 사고,  
종이 전에 가 종이 사고,  
보답 전에 가 보답 사고,  
괴기 전에 가 괴기 사고,

경 흐니,  
“산신제를 지내라.” 흐여,  
산신제를 지내놓고,  
최주국아들이 정좌수뜰  
홀목을 비여잡을랴고 흐니,  
“부모 허락 엇이  
흘 필요가 었다.  
아방국을 가자.” 흐연,  
정좌수첩일 갚수다.  
정좌수뜰은 최주국아들을 둘안  
집일 가니깐, 집이선  
“내 주식이 아니니깐  
기여나라.” 흐여,  
나오는디,  
시름또에 간 시름 쉬고  
연약이또에 간 연약하고  
밥섬에 간 밥 술마먹고  
시름또에 간 시름 쉬고,  
애기네또에 간 애기 낳고.  
애긴, 흐나, 둘, 싯, 낳는 것이.  
큰아들은 고완이 오일한집.  
남문밧디 셋성님.  
족은아들은 서문밧 세더대기.  
어멍국은 검은오름 두신무들  
조솟물 삼대바지.  
셋성은 당멀 허릿공 일뢰중조,  
족은 누이는 느지리 캔틈  
마봉오지 노념하고.  
구제기왓디 삼천시위 군벵.

제일, 1월 첫축일.

8월 첫축일.

<한림읍 옹포리 남무 50세 김승은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568-569.